

롯데도 유치전 나서나... 광주 복합쇼핑몰 '각축'

롯데쇼핑, 주총서 광주출점 발인
신세계·현대 이어 부지 등 관심 ↑
기존 사업장 수익성 개선안 내놔
롯데百 광주점 리뉴얼 등도 주목

롯데쇼핑이 광주에 복합쇼핑몰 출점의 사를 내비치면서 지역에서 유통 '빅3'의 각축전이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과 신세계그룹이 각각 '더 현대 광주'와 '스타필드 광주' 건립 계획을 밝히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유통 공룡' 롯데가 처음으로 광주 출점을 언급해 지역 유통가가 들썩이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롯데마트백

스 영등포점에서 진행된 롯데쇼핑 제5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김상현 롯데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은 광주 복합몰 조성을 포함해 오카도 물류센터, 백화점 리포지셔닝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김상현 부회장의 발언에 따르면 광주 복합쇼핑몰의 경우 '외형 아이템'과 '쇼핑 사업' 등의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이어가고 있으며 임차료 절감을 비롯해 사업성을 높일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해당 발언처럼 그동안 롯데가 광주 출점 의사 표명에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원인은 부지 선정과 수익성에 대한 고민이 깊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롯데는 광주지역에서 우치공원 패밀리랜드와 롯데칠성공장 등을 실사하는 등 복합쇼핑몰 출점 부지를 가능해왔지

만, 칠성공장은 용도변경 문제로 일찌감치 후보군에서 제외됐고, 우치공원의 경우 테마파크와 결합된 복합쇼핑몰의 사업성,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고민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가 어등산 부지에 대해 모든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는 제3자 공모를 진행할 것을 밝히며 앞서 어등산에 '스타필드 광주' 건립 의사를 밝힌 신세계프라퍼티와의 경쟁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 최종적으로는 우치공원과 어등산이 후보 부지로 물망에 올라와 있던 상황이다.

이처럼 롯데의 광주 출점 여부와 예상 부지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아왔지만, 지난해 8월 우치공원 등에 대한 현장 실사가 진행됐다는 소식 이후 반년 이상 출점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일각에서는 광주 출점을 포기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주총에서 김상현 부회장이 직접 광주 출점 검토를 발언한데 이어 기존 점포의 경쟁력을 강화, 수익성을 올리겠다는 의의까지 표명하면서 광주 출점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

기존 점포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는 비단 광주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시각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3000억원가량으로 연매출 8400억원에 달하는 광주신세계와의 경쟁구도에서 밀려난지 한참이기 때문에 롯데가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 백화점의 수익성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이다.

먼저 신세계프라퍼티의 스타필드 건립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광주신세계의 확장안처럼 롯데백화점 광주점 자체를 백화점과 아울렛, 백화점과 쇼핑몰 컨셉의 새로운 점포로 변모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만, 구도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경쟁력이나 추가 부지 확보를 감안한다면 가능성은 낮다.

또 백화점 미니화, 고급화 등 리뉴얼 전략을 통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의 역할을 완전히 분리할 수도 있다.

이날 주총에서의 발언에 대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광주 복합쇼핑몰에 대한 사업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던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사업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LH, 해남에 생활 SOC·일자리 결합 '주거플랫폼' 구축

오늘 해남군과 협약 체결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가 해남군과 협력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와 일자리가 결합된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29일 LH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30일 전남 소멸위기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해남군과 '복합 주거플랫폼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한다.

'주거플랫폼사업'은 주거 여건이 열악하고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 임대주택과 생활 SOC, 일자리 등을 패키지로 공급해 삶의 질을 개선, 기존 주민 및 신규 유입 인구의 정착을 지원해 지역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해남군 복일면 주거플랫폼사업은 작은학교 살리기와 연계해 복일초등학교의 전학 가구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12호를 건립하고 마을복합, 다목적 체육관 등 생활 SOC를 운영, 입주



전북 남원시 사매면의 12호 주거플랫폼. LH 광주전남지부 제공

민 일자리 알선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LH와 해남군, 복일면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민·관·공 거버넌스를 통해 지난해 8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어 지난해 10월 LH와 해남군 간 체결한 기본협약을 시작으로 폐교 위기의 복일초등학교 살리기에 노력 중이다.

이번 시행 협약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LH와 해남군의 역할 분담 등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공공임대주택 12호 공급 및 운영관리를, 해남군은 생활 SOC의 적기 건설·운영,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사항 지원 등의 업무에 나선다.

LH의 공공임대주택은 민간건축 매입 약정방식으로, 해남군 복일면 일원 4300㎡에 민간 주택을 건축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공임대주택은 내달 매입약정 공고(LH청약센터) 및 접수를 통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 착공 후 내년 상반기에 입주할 예정이다.

김재경 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해남군 복일면 주거플랫폼사업은 민·관·공이 협력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주거플랫폼사업의 표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광주은행, 지역 취약계층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재기부

쌀·잡곡·김 등 복지시설에 전달

광주은행은 고병일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00만원 상당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재기부' 행사를 펼쳤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은행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동참 분위기를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받은 답례품을 지역 사회복지 시설에 또다시 기부하는 행사를 펼쳤으며, 쌀·잡곡·김 등 1000만원 상당의 다양한 품목의 답례품을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문수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광주은행 임직원들의 마음을 모은 답례



품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

고병일 은행장은 "지역사랑에 대한 임직원들의 마음을 더 많은 지역민과 함께 나누고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재기부하는 의미있는 행사를 가지게 됐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기부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며 지역 대표은행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4일 광주송정역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목포역, 순천역, 서울 여의도 지하철역에서 영업본부별로 팀을 나눠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한 가두캠페인을 펼친 바 있다.

최권범 기자

기아, 대형 전기차 'EV9' 글로벌 시장 '첫선'

1회 충전 500km 이상 주행
고속도로 자율주행 적용

기아의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EV9' (사진)이 글로벌 시장에 첫선을 보였다.

29일 기아는 'The Kia EV9'의 혁신성을 소개하는 '월드 프리미어' 영상을 기아 글로벌 브랜드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EV9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에 기반한 기아의 두 번째 모델로, 기아의 지속가능성 비전을 앞당기고 이동에 대한 개념과 방식을 완전히 바꿔 새로운 경험을 전달할 플래그십 전동화 SUV로 출시 될 예정이다.

EV9은 99.8kWh 배터리와 다양한 효율 극대화 사양으로 국내 인증 기준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를 500km 이상으로 목표하고 있다.

최고출력 150kW, 최대토크 350Nm의 후륜 모터 기반 2WD 모델과 최고출력 283kW, 최대토크 600Nm의 전·후륜 모터 기반 4WD 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광주상의 '도쿄 선물·잡화 전시회' 참가 지원

참가비·항공료·통역비 등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3 일본-도쿄 선물·잡화 전시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을 내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2023 일본-도쿄 선물·잡화 전시회'는 전세계에서 3만5000여명이 방문하는 일본 종합소비재 산업 최고의 전시회로 오는 7월19일부터 7월21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다양한 국가에서 520여개 기업이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식품류, 선물용품, 패션 액세서리, 플라워소품, 향·아로마, 헬스·뷰티 등 모든 식품과 선물용품, 소비재 잡화가 총망라되며,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참가해 자사 제품을 전시, 바이어들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시회 참가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전시회 참가비의 80%, 참가자 항공료의 70%(최근 3년 이내 참가기업은 50%), 바이어 상담을 위한 통역료 100%, 편도 물품 운송료 100% 등을 지원받게 된다.

곽지혜 기자